

日本工業規格「情報交換用漢字符號」에 포함된 日本漢字에 대한 연구*

李 春 澤**

목 차

- | | |
|------------|------------------------------|
| 1. 緒 言 | 3. JIS의 [情報交換用漢字符號]에 포함된 日本字 |
| 2. 日本字의 정의 | 4. 結 言 |

1. 緒 言

漢字는 中國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후 東아시아로 확산되어 이른바 漢字文化圈을 형성하였고, 특히 2천여년 동안 韓國과 日本의 文字生活을 지배하여 왔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한글과 假名라고 하는 독특한 音標文字를 國字로서 가지고 있고, 양국 모두 근세 이래 지금까지 漢字廢止論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文字生活의 중요한 부분을 占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의 漢字處理가 가능해지고, 일시의 한자 페이지에서 오는 문자생활의 불합리성 때문에 오히려 한자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漢字教育이 강화되는 인상마저도 없지 않다. 그예로써 한국에서는 한글전용의 거센바람 때문에 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폐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72년부터 다시 부활되어 中. 高等學校에 한문의 獨立教科目을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일본에서도 當用漢字에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과 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습.

** 공주대학교 도서관교육과 부교수

서 常用漢字로 移行한 것은 그러한 감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리고 한글 전용이 민족 주체성회복이라고 한자를 완전히 폐지한 것으로 알려진 北韓에서도 한자성단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력저하로 지금은 基本漢字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컴퓨터의 발달로 불가능 하리라고 여겨지던 한자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한자문화권의 각국은 國家標準規格의 漢字코드를 만들어 自國民의 문자생활의 한 기준이 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컴퓨터의 이용은 MARC의 보급 교환 및 도서관 네트워크등 도서관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되었다.

반면에 각국의 독자적인 漢字코드의 제정 및 사용은 모든 것이 국제화된 상황에서 정보의 국제적 유통과 多言語·多文字 자료의 처리 및 이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등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교류가 빈번한 韓·日 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각국의 固有文字와 함께 漢字라고 하는 공통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컴퓨터에서 처리되는 漢字의 字數·字種 및 配列方法이 서로 달라서 적어도 컴퓨터를 통한 정보교환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를 비롯한 모든 학문적 정보의 공유 및 국제적 유통등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제정, 사용되고 있는 한자코드를 통합하여 一元化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다

차제에 國際標準化機構에서 제정한 「國際統合漢字코드」의 출현은 정보의 국제적 유통은 물론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등 모든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漢字가 國際文字라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상호간에 의미가 통하지 않게된 字들이 적지 않게 되었다. 그 중에는 각국에서 독자적으로 造字한 이른바 國字, 俗字, 異體字, 簡體字등이 있고, 또한 동일한 한자라 하더라도 의미가 달라진 字 등이 있어서 간단히 共通文字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漢字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게된 현재에 있어서 한자

1) 李春澤, Computer코드를 위한 韓國工業規格과 日本工業規格의 基本漢字에 대한 比較研究, 清浪 鄭瑔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서울 : 同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p. 526

로 기록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이것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웬만한 字典에는 수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고는 일본에서 한자사용의 한 기준이 되고 있는 日本工業規格「情報交換用漢字符號」JIS X 0208에 포함되어 있는 日本字들을 조사분석하고 국내외 字典을 참고하여 그 한자가 형성된 과정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용도를 밝히므로써 日本語로 된 情報資料의 정확한 이해는 물론 韓·日間 서지정보의 교환 및 한자처리의 효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2. 日本字의 정의

日本字는 보통 和字 또는 倭字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日本에서 만들어진 漢字體의 文字를 말한다. 日本字는「大漢和辭典」²⁾에 의하면 '그 由來하는바가 심히 오래된 것도 있고 또는, 舊書로부터 유포되어 또다른 字體를 만든 것도 있어 대체로 4種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漢字를 본떠서 새로운 字體를 만든 것으로 이들은 대개 會意로 형성된 것으로서 訓만 있고 音이 없다. 이것이 倭字의 特質이다.

둘째는 漢字에 그 體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그 뜻을 정한 것으로 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漢字의 原義와는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漢字音은 있으나 그 뜻이 未詳인 것인데, 이들은 漢字에 그 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만든 것과, 그 體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도의 뜻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어떤사물의 성질에 기초하여 原字의 일부를 개작하여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이중에서 둘째는 日本 國義字 및 國音字로 순수한 日本字로 分類할 수 있는 것은 첫째와 셋째이다.

2) 諸橋徹次 著. 大漢和辭典. 修訂版. 東京 : 大修館書店, 昭和59年. 卷2, P.975

3. JIS의 「情報交換用漢字符號」에 포함된 日本字

JIS X 0208-1990에 수록된 漢字중 國義字를 제외한 日本字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 日本字의 추출은 「大漢和辭典」³⁾ 및 「漢和辭典」⁴⁾근거로 추출하였으며, 兩辭典에 공히 國字라 한 것과 「大漢和辭典」미수록자중 「漢和辭典」에 國字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본래는 漢字이나 音義未詳등으로 거의 쓰지 않는 字중 지금은 거의 日本字로만 쓰이는 字만을 日本字로 취급하였고, 이에 대한 해설은 日語版으로는 「大漢和辭典」과 「漢和辭典」, 「最新JIS漢字辭典」⁵⁾ 「廣辭林」⁶⁾ 「國字の字典」⁷⁾을 참고하였고 국내서로는 「日韓大辭典」⁸⁾과 「엣센스日韓辭典」⁹⁾등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아울러 國內字類로써는 「新字典」(崔南善)이 말미에 日本俗字部를 두어 98字的 日本字를 수록하였는데 音은 없이 뜻만을 수록하였고, 이후의 字典들이 이를 臺本으로 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新字典」의 수록여부를 밝혔고, 「大字源」¹⁰⁾ 및 「漢韓大字典」¹¹⁾은 국내사전 중에는 가장 많은 日本字를 수록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그들의 수록여부를 밝혔다. 단 이들 字典에 수록된 音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音은 아니다. 日本字의 특질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訓만 있고 音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의 字典들에 실려있는 日本字는 모두 音을 가지고 있다. 일본자를 맨처음 자전에 수록한 것은 池錫永의 「字典釋要」¹²⁾라고 생각되는데 日本字등 字典不載字들은 諧聲法에 의거하여

3) 諸橋徹次 著. 大漢和辭典. 修訂版.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61年

4) 赤塚 忠; 阿部吉雄 編. 漢和辭典. 改訂新版. 東京: 旺文社, 1986.

5) 田嶋一夫 監修. 「最新JIS漢字辭典」. 東京: 講談社, 1990

6) 廣辭林. 三省堂編輯局編. 第5版. 東京: 三省堂, 1980.

7) 菅原義三 編. 國字の字典. 東京: 東京堂, 平成 2年(1990)

8) 日韓大辭典. 柳星 監修. 서울: 韓英出版社, 1978.

9) 安田 吉實; 孫洛範 共編. 엣센스日韓辭典. 서울: 民衆書林, 1987.

10) 張三植 著. 大字源. 서울: 三省出版社, 1990

11) 金赫濟, 金星元 編著; 車柱環, 張基植, 金學柱 監修. 漢韓大字典. 서울: 明天堂. 1984

12) 池錫永. 字典釋要. 「漢陽」: 雁東書館, 1909년. 1976년 아세아문화사 영인.

음을 달았다 하였다. 「新字典」을 제외하면 이 후 발행된 자전들의 음은 여기에 기원을 둔것으로 생각되나 어디까지나 類推에 의한 것이며 간혹 자전에 따라 음이 다른것이 이 때문이다.

俟(43-83)¹³⁾: 會意字로서, '俟'(=まつ)의 字形을 일부 변형시켜, '또'(また)라는 말에 적용시킨 것이라 한다. 音은 없고 日訓은 'また' 또는 'わかれまた'로 '또'를 의미한다. '俣野'(マタメ)라는 姓氏에 쓰이며 地名, 人名에도 사용한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갈래질 오'(又也)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도 역시 日字로서 '또 오'(又也)라 하였다.

俣(48-63): 會意字로서, '人'과 '弟'의 合字이다. '동생(弟)은 兄과 닮아서 그의 面影이 있다'는 뜻으로 造字된 것으로 音은 없고 日訓은 'おもかけ'로서 '누군가와 닮은 얼굴'이라는 뜻이다. 「新字典」에 '形貌, 典型'이라고만 하였고, 「大字典」 및 「漢韓大字典」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日字로서 '용모 제'(容貌), '얼굴그림자 제(面影), 모습 제(容貌)'라 하였다.

俣(48-64): 會意字로서, '人'과 '車'의 合字이다. '사람이 끄는 수레'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人力車'를 뜻한다. 音은 없고 訓은 'くろま'이다. 국내자전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日字로서 '인력거 거'라 하였다.

働(38-15): 會意形聲字로서, '人'과 '動'의 合字이며,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일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특히 '도우'(ドウ)라는 音을 가지고 있고 訓은 'はたらく'이다. 본래 日本字였지만 中國에서도 사용되었던 字로 「中華大字典」에 '働 日本字 吾國人通讀之若動'이라 수록되어 있다. 「新字典」에 '힘써한다. 힘드린 공있다. 活動한다'라 하였고, 「大字典」에 日字로서 '굵닐 동'(行動竭力), 「漢韓大字典」에 역시 日字로 '힘써일할 동. 일할 동. 활동할 동'이라 하였다.

13) 이 숫자는 「JIS情報交換用漢字符號」의 圖形文字符號表에 나타나 있는 區와 點의 번호이다.

凧(34-92): 會意字로서, 風의 생략형인 '凧'와 '巾'의 합字이다. '바람에 나부껴 위로 올라가는 베'라는 뜻으로 '연'(紙鳶)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たご' 또는 'いかのぼり'이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연 魁'(紙鳶)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연 건'이라 하였다. 두자전의 音이 서로 다른 것은 音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大字典」은 '凧'의 音을 따고 「漢韓大字典」은 '巾'의 음을 딴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래의 '凧'과 '凧'가 모두 안의 것에서 音을 딴 것으로 보아 '건'이 옳을 듯 하다.

凧(49-62): 會意字로서, 風의 省略形인 '凧'와 '木'의 합字이다. '나무의 잎을 불어 흐트리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音은 없고 'こがらし'라 訓하는데 こがらし는 '晩秋로부터 초겨울에 걸쳐 사납게 부는 바람'을 말한다. 나무의 잎을 불어 날려 버리기 때문에 こがらし(木枯)라고 한다.

「新字典」에 '서리바람'(秋冬之交疾風), 「大字典」에 日字로서 '찬바람 목'(秋末初冬風), 「漢韓大字典」에는 역시 日字로서 '서리바람 목'이라 하였다.

凧(38-68): 會意字로서, 風의 省略形인 '凧'와 '止'의 합字이다. '바람이 멎는다'는 뜻을 나타낸 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なぐ'로서, '바람이 멎고, 파도가 그칠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新字典」엔 그냥 '바람잔다'라 하였는데, 「大字典」에 日字로서 '바람이 자고 파도 그칠 지'(風浪止). 「漢韓大字典」에 '바람자고 물결잘지'(風止而浪止)라 하였다.

匂(38-87): 韵의 省略形인 '匂'이 변한 字形으로 '餘韻이 있고 아취가 있다'는 뜻의 日語 'におう'에 적용시킨 것이다. 轉하여 香氣를 뜻하는 'におい'의 뜻으로도 쓰인다. 音은 없고 訓은 'におう'이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향내 내'(香也)라 하였고, 「漢韓大字典」 역시 日字로서 '향내 내, 냄새 내, 곱게보일 내'라 하였다.

匁(44-72): 重量의 單位인 '(もんめ)'를 '文メ'라 썼는데, 이를 一字로 組合하여 만든 字이다. 音은 없고 訓은 'もんめ'로서 ①重量의 單位로 一貫의 千分の一 즉 3.75g을 뜻한다. 略하여 'メ'라고도 쓰며, ②江戸時代에는 貨幣의 單位로도 쓰여 一兩의 六十分の一을 뜻하였다. 「新字典」에 '銀稱으로 一兩의 六十分之一, 한돈重'이라 하였고, 「大字典」

源」에 日字로서 ‘몸에 문’(衡目), 「漢韓大字典」 역시 日字로 ‘한돈중 문(一錢重), 몸매 문’이라 하였다.

ㄷ (51-61): 순수한 日本字는 아니다. 본래 有音無義字로서 「康熙字典」에 의하면 ‘丑入切 音尺’이라 하였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會意字로서 ‘口’와 ‘入’의 합자로 ‘입이 큰 容器’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かます’이다. ‘짚등으로 엮어서 만든 容器’로 穀物이나 石炭등을 넣는데 사용한다. 「新字典」에 ‘섬. 石子, 가마니’라 하였고, 「大字典」 및 「漢韓大字典」 등에도 日字로서 ‘섬입, 가마니 입’이라 하였다.

ㄸ (51-06): 會意字로써, ‘口’와 ‘行’의 합자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さそう’(誘)로서 ① 함께가도록 권하다 ②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한다. 國 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ㄹ (22-84):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日本國字는 아니다. 본래 뜻은 없고 音만 있는 字로서 「新修康熙字典」에 의하면 ‘喰’은 ‘[龍龕] 音餐; 又音孫’이라 하여 殘字로 처리하였는데. 殘字는 ‘혹 有音無義이거나 有義無音이거나 音義가 모두 없는 字¹⁴⁾’를 말한다. 「大漢和辭典」 역시 ‘義未詳’이라하고 「康熙字典」과 동일한 내용을 실고 있다. 반면에 日本에서는 會意字로서 ‘口’와 ‘食’의 합자로 ‘입으로 무엇을 먹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しょく’이고 訓은 ‘くう’ 또는 ‘くらう’이다. 「大漢和辭典」은 ‘食과 同義로 쓰며 또한 飧과 같다고도 한다’ 하였다. 또한 地名으로도 쓰여 ‘喰代’는 伊賀國의 地名이며 姓氏로도 쓰인다. 「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먹을 식’(喰也), 「漢韓大字典」 역시 日字로서 ‘먹을 식’(食也)이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民衆書林)에는 단순히 ‘飧과 食字’라 하였고 「漢韓大辭典」(東亞出版社) 역시 ‘飧과 食字’라고만 하였다.

ㄺ (40-24): 會意字로서 ‘口’와 ‘新’의 합으로 ‘新奇的 이야기’라는 뜻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はなし’로 ‘說話, 童話, 落語, 이야기’(物語) 등의 뜻으로 쓰인다. 「新字典」에

14) 張玉書 等 總閱; 浚紹受 等 纂修; 高樹藩 重修. 新修康熙字典. 台北: 啓業 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 75年. 上卷 p.14

日字로서 '이야기. 古談'이라 하였고, 「大字源」은 日字로서 '이야기 신'(古談), 「漢韓大字典」 역시 日字로 '이야기 신'(說話)이라 하였다.

噲(51-85): 地名語에 쓰였던 字로서 訓은 없고 音은 '소(ソ)'이다. 噲(ソオ)는 鹿兒島縣의 郡名으로 현재의 曾於郡이다. 최근에는 曾於郡으로서 쉬운자로 고쳐졌지만 전에는 噲郡이라고 썼다. 옛날 熊襲(くまそ)國을 襲(そ)의 나라라고 칭했던 名殘으로서 이 지방을 噲(そ)라고 불렀다. 그후 郡名은 반드시 두자를 쓰도록하는 詔勅이 내려졌을 때 '噲'字를 추가하여 '噲噲'로 하였으나 당시 이 助字는 읽지 않아도 좋다는 습관이 있었다 한다. 국내 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字이다.

以(52-09): '둑이나 제방 아래에 管을 묻어서 用水·下水를 통하게 하는 곳'으로 '水門'을 뜻한다. 音은 없고 訓은 '이리'이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수문입'(水門), [漢韓大字典] 역시 '수문 입'(閘也)이라 하였다.

坏(52-10): '낮은 곳'을 뜻하는 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あくつ'이다. 地名과 姓氏로 사용되며, 坏大野(アクトオホノ)는 常陸國의 地名이다. 國內字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坳(52-11): 音은 없고 訓은 'まま'로 '낭떠러지, 벼랑(崖), 절벽. 깎은듯이 선땅. 둑, 제방이 무너진 곳'이란 뜻이다. 國內字典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坩(52-18): 音은 없고 訓은 'ぬた'로 沼田. 濕田. 泥地 등을 뜻한다. 地名으로 사용되어 '大坩'(おおぬた)는 山梨縣에 있는 地名이다.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字는 韓國字이기도 해서 國內字典에는 주로 韓國字로 '터 대', '집터 대'등으로 수록되어 있다. 양국에서 각기 달리 造字되었으나 우연히도 字形이 일치하는 字인듯하다.

圻(52-24): 音은 없고 訓은 'がけ'로 埼玉縣 八潮市 大字圻 이라는 地名에 사용한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垓 (52-27): 音은 없고 訓은 ‘たお’로 ‘고개’(峠) 또는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낮은 부분, 즉 말안장 같이 된곳’(鞍部)을 의미한다. 그리고 地名語로 山口縣 周防에 있는 地名에도 쓰인다. 국내 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坻 (52-34): 音은 없고 訓은 ‘ごみ’로 ‘먼지’를 뜻한다. 地名語로도 사용되어 ‘坻渡’(ごみわたり)는 青森縣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塙 (42-29): 會意形聲字로서 ‘屏’에 ‘土’를 덧붙여서 ‘흙으로 만든 울타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へい’인데 ‘垆地나 저택 둘레의 土石이나 板의 壁’을 의미한다. 국내 자전에는 日字로서 ‘담병’(塙也)이라 하였다.

塗 (52-43): 音은 없고 訓은 ‘あま’로 ‘海人’을 뜻하여 바다에서 물고기와 조개, 海藻 등을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地名, 人名으로도 쓰인다. 국내 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塙 (52-49): 音은 없고 訓은 ‘まま’ 또는 ‘ま’이다. 地名에 사용되어 ‘塙之上’(まものうえ)는 靜岡縣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墟 (52-60): 音은 없고 訓은 ‘まま’로 地名에 사용한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孀 (53-46): 會意字로써 ‘女’와 ‘鼻’를 합하여 ‘콧대가 센 여자’의 뜻이라고 한다. 音은 없고 訓은 ‘かか,’ ‘かかめ’로서 ‘아내를 천시해서 말하는 俗語’이며 孀로 쓰기도 한다. 「大字源」에는 日字로서 ‘여편네 비’(妻賤稱)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마누라 비’(妻賤稱之)라 하였다.

剗 (54-07): 音은 없고 訓은 ‘なた’(山刀)로 地名에 쓰인다. ‘剗卷(なたまき)’는 宮城縣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岬 (54-16): 音은 없고 訓은 ‘ゆり’로 ‘바람이나 물이 모래를 쓸어 올려서 생겨난 平地’를 뜻한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岬 (54-18): 音은 없고 訓은 ‘くら’(谷)이다. 地名에 쓰인다. ‘芦峯寺’(あしくらじ), ‘岩峯寺’(いわくらじ)는 富山縣 中新川郡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岬 (54-19): 音은 없고 訓은 ‘やま’로 地名에 사용한다. 京都市 左京區에 廣岬(ひろやま)町가 있다 ‘岬’와 마찬가지로 日本字이면서 韓國字이기도 한 듯하다. 국내자전에는 韓國字로만 취급하였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峠 (38-29): KS의 漢字코드에도 포함되어 있는 자이다. 會意字로서 산길의 오르막(上)과 내리막(下)의 境界가 되는 곳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音은 없고 訓은 ‘とうげ’(도우게)라고 한다. ①산마루·고개 ②절정기·고비 등의 의미로 사용한다. 「新字典」에 ‘재 嶺’이라 하였는데 「大宇源」에는 日字로서 ‘고개 상·재상’(山嶺)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明文堂)에는 ‘언덕길 꼭대기 상(坂路頂上)·고비 상’(病等危險時期)이라 하였다. 韓國의 여러 文獻(地方行政區域要覽等)의 地名表記에 ‘峠’대신 ‘峠’을 쓴 곳이 많은데 이로 인하여 KS에도 포함된 字이나 이는 분명한 誤謬이다.¹⁵⁾

坳 (54-46): 音은 없고 訓은 ‘たわ’(撓)로 ‘산의 등성이가 움푹패어 낮아진 곳, 또는 산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낮은 부분 즉 말안장같이 된곳’(鞍部)를 의미한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休 (55-74): ‘心’과‘永’의 合字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こらえる’로 ‘마음(心)을 느긋하게(永)하여 堪忍하다’라는 뜻이다. 「大宇源」등에 日字로서 ‘견딜 영’(堪也)이라 하였다.

15) 李春澤. 韓.日 國家規格漢字코드의 統合研究.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1991. P.156

扱 (57-14): 扱(さて)가 변한 형태로 음은 없고訓은 'さて'이다. 말을 바꿀때 쓰는 말로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등의 뜻으로 쓰인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그러하나 인, 그런데 인'(發語辭, 雖), [漢韓大字典]에는 '그러나 인 又 그런데 인'(發語辭, 雖然)이라 하였다.

掄 (57-62): 음은 없고訓은 'はば'이다. 「難讀奇姓辭典」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奇姓에 사용된 字인 듯 하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杻 (59-21): 음은 없고訓은 'いり'이다. 地名에 쓰여 '杻ヶ島'(いりかしま)는 愛知縣春日井市에 있는 地名이고, 杻前(いりまえ)는 愛知縣津島市에 있는 地名이다. '杻江'(いりえ), '杻山'(いりやま)등 人名으로도 쓰인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杻 (44-61): 會意形聲字로 '木'과 '工'의 合字이다. 음은 없고訓은 'もく'(木工)로 '목수'를 뜻한다. 「大宇源」등에 日字로서 '목수 목'(木手)이라 하였다.

杻 (59-28): 會意字로서 '山'과 '木'의 合으로 '나무를 취하는 山'이란 뜻을 나타낸다. 음은 없고訓은 'そま'로 '杻山'는 '材木을 베어내는 산'이란 뜻이고, '杻木'은 '山林으로부터 베어낸 나무'라는 뜻이다. 또한 '나무를 베는것'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杻人'은 '나무를 베는 사람'(樵夫)을 뜻하기도 한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나뭇꾼 산'(樵人)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나무하는 사람 산(樵人), 뗏목 산(筏也), 뗏가 산(山邊)이라 하였다.

枅 (59-29): 枅(38-42)의 別體字이다. 음은 없고訓은 'とち'로 '深山에 자생하는 落葉喬木'인 상수리 나무(橡)를 의미한다. 일설에 'と'(十)와 'ち'(千)를 붙이면 '万'(まん)이 되기 때문에 '木'에 '万'을 합하여 'とち'라고 읽힌다는 것이다. 「大宇源」에 日字로

‘차례 료’(次第)라 하였으나 그 이유를 알수없다.

杵 (47-40): 會意字로 ‘木’과 실감는 道具를 뜻하는 ‘杵’과의 合字로서 ‘목제의 열레’(系杵)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わく’로 ①실감는 道具·②布·紙등을 팽팽하게 하기 위해 가는 나무나 대(竹)를 組合시킨 骨組. ③콘크리트 공사의 板올타리 ④四方을 두른 線 ⑤제한·범위등의 뜻으로 쓰인다.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테 수’(木匡. 木郭)라 하였다.

枱 (59-38): 會意字로서 ‘木’과 ‘升’의 合字로 ‘木の升’(되)이란 뜻을 나타내며 ‘升’과 같다. 音은 없고 訓은 ‘ます’로 ①方形의 木匣으로 容積을 헤아리는 도구 ②되와 같이 四角의 형태로 된것 ③연극등의 觀覽席에 있는 方形의 간막이 등의 뜻으로 쓰인다. 「大字典」 등에 日字로서 ‘되 승’(升也量器)이라 하였다.

柶 (36-46): 會意字로 ‘여러종류의 工作. 建築用材의 母體가 되는 나무’라는 뜻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つが’, 또는 ‘とが’로 소나무과의 常綠喬木의 하나인 ‘솔송나무’를 뜻한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나무이름 모’(木名. 常綠喬木이며 梅와 비슷함)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솔송나무 모’(常綠喬木 葉細長 果毬狀扁平 木理緻密 用途多)라 하였다.

枅 (43-79): KS에도 수록되어 있는 字로서 엄격히 말해서 日本國字는 아니다. 「康熙字典」은 ‘[字彙補] 同枅’라 하여 ‘枅’(널 구)와 同字라 하였으며, 「大漢和辭典」역시 「字彙補」의 ‘枅은 同枅’라 한 記錄을 들어 日本國義字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日本에서도 本義인 ‘枅’의 意味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듯 「漢和辭典」은 日本國字라 하였고 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KS 역시 音이 ‘구’가 아니고 ‘정’인 것으로 보아 ‘枅’의 뜻이 아닌 日本字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枅’을 日本字로 할 때는 音은 없고 訓은 ‘まさ’(마사)라 하며, 意味는 1)木材의 나뭇결이 곧게 벌은 것 또는 그러한 材木을 뜻하고, 2)まさき(마사기)는

植物名으로 사철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新字典」에 ‘梶 [マサ] 나무결 고름’이라 하였다.

「大字典」에는 二音字로 첫째는 ‘구’로 ‘樞’와 같다 하였고, 둘째는 ‘정’인데 이는 日字로 ①나무바를 정(木之正) ②나무결이 좋을 정(木理好貌)이라 하였다. 「漢韓大字典」(明文堂)은 순수한 日字로 ‘木理不亂. 나무바를 정’이라 하고, 또 ‘樞同’이라 하였는데 이는 誤謬이다. ‘梶’이 ‘樞’와 같은 뜻으로 쓰일 때는 上記한 바와 같이 日字도 아니고 그音が ‘정’도 아니기 때문이다.

柄 (38-42): 會意字로 본래의 字形은 朽이며 ‘木’과 ‘万’의 合字로 ‘七葉樹’라는 뜻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とち’로 深山에 자생하는 喬木의 하나인 ‘상수리 나무’를 뜻한다. 「大字典」에 日字로 ‘상수리나무 회’(橡木)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도토리나무 회 又 상수리나무 회’(橡木)이라 하였다.

杣 (43-81): 杣 (59-38)의 俗字이다.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되 승’(升也. 量器)이라 하고 ‘杣俗字’라 하였다.

峯 (59-82): ‘麓’의 日本式俗字이다. 會意字로 麓의 생략형인 ‘林’과 ‘下’를 합하여 ‘산의 기슭’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ふもと’이며 ‘산기슭’, ‘산자락’등의 의미로 쓰인다. 「大字典」에는 그냥 ‘麓의 俗字’라고만 하였으나, 「新字典」에 ‘山麓, 메기슭’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역시 日字로 ‘산기슭’이라 하였다.

杉 (31-90): ‘衫’의 日本式俗字이다. 會意字로 ‘木’과 변성한다는 뜻의 ‘昌’과의 合字로 ‘잘 자라는 나무’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すぎ’로 ‘삼나무’(杉木)을 뜻한다. 「新字典」에 ‘삼나무’라 하였고, 「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삼나무창’(杉也)이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삼나무삼’(杉同)이라 하였다.

栞 (60-15): 會意字로 門이 집의 内外를 구별하기 때문에 ‘木’과 ‘門’과를 합하여 <ぬ

ぎ의 또다른 이름인 'くのぎ'(區の木)에 맞추어 만든자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くぬぎ' 또는 'くのぎ'라 하는데 너도밤나무과의 落葉喬木으로 '상수리나무'를 뜻한다. 櫟, 榿, 榿과 같으며 地名, 人名에도 쓰인다.

「大字典」에는 日자로 '상수리나무 櫟'(櫟也)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역시 日자로 '굴참나무 櫟'(櫟同)이라 하였다.

栂(19-81): 會意字이다. '木'과 '花'와의 合字로, 꽃처럼 예쁘게 물이든 나무 즉 '단풍'의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もみじ'(紅葉)로 '단풍' 또는 '단풍나무'(もみじの木)를 가리키며 栂으로도 쓴다. 둘째는 '樺'의 略字'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音이 '가'(が)로 '栂山'(カバヤマ)는 姓氏이다.

「新字典」에 '紅葉. 丹楓'이라 하였는데 「大字典」에는 日로서 '단풍나무 화'(丹楓), 「漢韓大字典」은 역시 日자로 '단풍나무 화'(紅葉. 楓樹)라 하였다.

榿(60-09): 音은 없고 訓은 'なき'(柳)로 '竹栢나무'를 뜻한다. 地名으로도 쓰여 '榿比'(なきのつじ)는 京都市 山科(やましな)區에 있는 地名이다. '榿'는 '나무(木)를 보고 그 장소를 알 수 있다(知)는 의미로 그 당시의 街道 등에 있던 높고 큰나무가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으로 부터 만들어진 자라고 생각된다'는 것이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榿(60-13): 音은 없고 訓은 'たぶ'로 'たぶのき'는 녹나무과에 딸린 常綠喬木으로 '후박나무'를 뜻한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榿(60-14): 音은 없고 訓은 'くぬぎ'(櫟)로 너도밤나무과의 落葉喬木인 '상수리나무'를 뜻한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榿(60-16): 音은 없고 訓은 'しで'로 'しでのき'는 자작나무과의 落葉喬木이다. 地名에도 사용되어 '榿原'(しではら)는 奈良縣에 있는 地名이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

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榎(60-17): 音은 없고 訓은 ‘くぬぎ’(櫟)로 너도밤나무과의 落葉喬木인 ‘상수리나무’를 뜻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椽(60-25): 音은 없고 訓은 ‘はんぞう’(半挿)로 첫째는 ‘胴體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 竹管을 꽂아 물을 따라 넣는데 쓰는 容器’. 둘째는 ‘손잡이가 달린 작은 납비모양의 술주전자’(ひさげ)의 뜻으로 쓰인다.

新字典」에 ‘흙통’, 「大宇源」에 日字로서 ‘흙통 천’(通水管)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물따라 넣는 그릇 천’(주전자와 같이 귀가 달려있음)(注水入器), ‘귀달린자배기 천’(小甕類)이라 하였다.

檜(60-35): ‘木’과 ‘室’의 合字로 音은 없고 訓은 ‘むろ’이다. 老松나무(檜)과의 常綠針葉樹인 ‘杜松’의 옛이름이다. 「大宇源」은 日字로서 ‘두송 실’(杜松)이라 하고, 「漢韓大字典」은 ‘두송나무 질’(針葉喬木之一, 杜松)이라 하였다.

榊(26-71): 會意字로서 ‘木’과 ‘神’을 合해 ‘神前に 바치는 나무’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さかき’인데 ‘さかき’는 동백나무과의 常綠樹인 ‘비쭈기나무’를 뜻한다. 日本에서는 古來로 그의 小枝를 神前に 바치는 神木으로 사용한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신나무 신’(神樹)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비쭈기나무 신’(神木)이라 하였다.

檣(60-47): 音은 없고 訓은 ‘かし’이다. 배(船)를 매어두기 위해서 물밑에 세우는 말뚝(杭), 또는 장대(棹)를 뜻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樛(60-51): 音은 없고 訓은 'ほくそ'이다. 부싯돌에서 생긴 불을 옮기는 '부싯깃'(火口)를 뜻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있지 않다.

樛(19-63): 會意字이다. '木'과 '堅'의 합으로 材質이 단단한 '떡갈나무'를 의미한다. 音은 없고 訓은 'かし'로 '떡갈나무'와, 'かたぎ'(堅木)로 '단단한 나무'를 의미하기도 한다. 「大宇源」에는 日字로 '떡갈나무 견'(樛屬)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떡갈나무 견'(樛也)이라 하였다.

樛(60-79): 音은 없고 訓은 'ずさ'로 '나무이름'(木の名)이며, 地名으로 쓰이기도 하여 樛原(ずさはら)는 福島縣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樛(61-22): 音은 없고 訓은 'つき'로 '둥근느티나무'를 뜻한다. 「大宇源」에 日字로 '나무이름 관'(木名),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나무이름 관 又 팽나무 관'(木名)이라 하였다.

芻(61-59): 會意字로 '毛'와 '少'를 합하여, '털을 잡아 뽑아 작게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むしる'로 ①털등을 잡아뽑다. ②(생선따위의 뼈에서)살을 발라내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大宇源」에 日字로 '뜯을 모'(拔引取),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물어뜯을 모'(口折取)라 하였다.

煇(63-80): 訓은 없고 音은 '고우'(コウ)이다. 煇燄(コウコウ). 砲煇(ホウコウ)는 (옛날의)大砲이다. 「大宇源」에 日字로 ①대포 공(大砲) ②포신 공(火砲身).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대포 공'(大砲)이라 하였다.

燧(63-93): 形聲字로 訓은 없고 音은 '다쓰'(タツ)이다. '火燧(コタツ), 炬燧(コタツ)의 'タツ'音을 나타내기 위해 達(タツ)字를 쓰고 그 위에 火를 덧붙인 字이다. 炬燧

란 溫氣를 취하는 장치로 작은 圍爐裏(いろり: 농가 따위에서 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도려내고 방한용·취사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 위에 櫓를 덧붙여 이불등을 걸쳐서 발(足)등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大字源」 등에 日字로 ‘자리속에 넣는 화로 달’(寢火爐)이라 하였다.

尗 (65-03): 音은 없고 訓은 ‘デカグラム’이다. 重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불란서어 Decagramme의 譯語로 ‘尗’과 同字이다. 「新字典」에서 新字로 ‘데카그램’이라 하였는데, 「大字源」과 「漢韓大字典」 모두 新字로 ‘데카그램 십’이라 하였다.

尗 (65-04): 會意字로서 ‘千’과 ‘瓦’(그램)과의 合字로 ‘千그램’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①キログラム(킬로그램) ②キロワット(킬로와트)이다.

‘尗’과 同字이다. 「新字典」에서 新字로 ‘킬로그램’이라 하였는데 「大字源」은 新字로 ①킬로그램 천(衡名 Kilogramme 瓦千倍) ②킬로와트(電力單位 Kilowatt)라 하였고, 「漢韓大字典」 역시 新字로 ‘킬로그램 천(重量單位 瓦之千倍), 킬로와트 천’(電力單位)이라 하였다.

尗 (65-07): 音은 없고 訓은 ‘デシグラム’이다. 重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불란서어 Decigramme의 譯語로 ‘尗’과 同字이다. 「新字典」에서 新字로 ‘데시그램’이라 하였는데,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 역시 모두 新字로 ‘데시그램 분’(衡名 decigramme 瓦의 十分之一)이라 하였다.

尗 (65-08): 音은 없고 訓은 ‘ミリグラム’이다. 重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불란서어 Milligramme의 譯語로 ‘尗’와 같다. 會意字로서 그램을 뜻하는 ‘瓦’와 千分の 一을 의미하는 ‘毛’와의 合으로 ‘千分の 一그램’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新字典」에 新字로 ‘밀리그램’이라 하였는데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 모두 新字로 ‘밀리그램 모’(衡名 milligramme 瓦의 千分之一)라 하였다.

尗 (65-09): 音은 없고 訓은 ‘ヘクトグラム’이다. 重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불란서어 Hctogramme의 譯語로 ‘尗’과 同字이다. 「新字典」에 新字로 ‘헥토그램’이라 하였는데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 모두 新字로 ‘헥터그램 백’ (衡名 Hectogramme 瓦의 百倍)이라 하였다.

應 (65-13): 音은 없고 訓은 ‘センチグラム’이다. 重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불란서어 Centigramme의 譯語로 ‘應’와 同字이다. 「新字典」에서 新字로 ‘센티그램’이라 하였는데 「大字源」 및 「漢韓大字典」 역시 모두 新字로 ‘센티그램 리’(衡名Centigramme 瓦의 百分之一)라 하였다.

畑 (40-10): KS에도 포함되어있는 字이다. 會意字로서 ‘火’와 ‘田’의 合字로 水田에 對하여 풀을 살라서(燒) 開墾한 陸田 火田을 뜻한다. 音은 없고 訓은 ‘はた’(하다) 또는 ‘はたけ’(하다게)이다. 「新字典」에도 ‘畑 ハタケ 밭’이라 하였다. . 우리말로 1) ‘밭’을 의미하고, 2) ‘영역 전문분야’를 의미한다.

「大字源」에 ①화전전(火畷田) ②日字로 밭전(田也)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역시 日字로 ‘밭 전’(田也)이라 收錄하였다.

畷 (40-11): 會意字로 ‘白’과 ‘田’과의 合字이다. 白은 물이 없이 말라 있다는 뜻으로 ‘마른논’ 즉 ‘밭’이라는 뜻이다 畑과 同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はた, はたけ’이다. 「大字源」 등에 日字로 ‘밭 전’(田也. 田地)이라 하였다.

岫 (65-30): 音은 없고 訓은 ‘けさ’로 지명으로 쓰여서 鹿兒島縣의 曾於郡에 ‘岫ヶ山’(けさかやま)라는 지명이 있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癢 (65-91): 會意形聲字로 訓은 없고 音은 ‘샤구’(シャク)이다. ‘ㄱ’과 ‘積’과의 合字로 ‘불쾌함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①さしこみ(疝痛)는 感情의 激動, 蛔蟲, 暴飲暴食, 冷氣등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격한 통증으로 위경련, 자궁경련, 위통 등을 말하고 ②かんしゃく(癩癢)는 곧 격노하는 감정, 울화 등을 뜻한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성발 적(怒發),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가슴살이 적 又 위경련 적’(胸腹痛, 胃痙攣類) ‘성발 적’(憤怒之情)이라 하였다.

砒 (40-03): 會意字로서 '岩石이 많은 골짜기'란 뜻이다. 音은 없고 訓은 'はざま'로서 '골짜기'를 의미하고 地名으로도 쓰여 砒田(ハザマタ)는 越後國의 地名이다. 「大宇源」등에 日字로서 '산골짜기 곡'(峽也)라 하였다.

砒 (66-77): 音은 없고 訓은 'かき'이다. '石'과 '花'를 合한자로 蝸조개, 석굴을 의미하며 보통 '牡蠣'라고 쓴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笥 (67-83): 音은 없고 訓은 'うつぼ'이다 ①화살을 넣어서 몸에 차는 筒形의 容器로 '箭筒'을 뜻하며 ②地名에 사용되어 '笥井'(うつぼい)는 郡馬縣의 前橋市에 있는 地名이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笹 (26-91): 會意字로서 '竹'과 '葉'의 省略形인 '世'와의 合字로써, 竹葉, 조릿대(작은 대나무의 총칭)의 뜻을 나타낸다. 音은 없고 訓은 'ささ(사사: 조릿대)이다. 「新字典」에도 '笹 ササ 細竹'이라 하였다. 意味는 1)群集해 살고 있는 가늘고 작은 대(竹)를 總稱한다. 2)술(酒)의 別名이다. 3)人名으로 쓰인다. (ささ). 「大宇源」과 「漢韓大字典」에 모두 日字로서 '가는대 세'(細竹)라 하였다. KS역시 音 '세'로 收錄되어 있으나 어떻게 해서 選拔된 자인지 알 수가 없다.

筥 (68-44): 音은 없고 訓은 'やな'이다. '魚梁'(시내를 막아서 물고기를 잡는 장치)을 意味하는 '梁'에 '竹'을 첨가한 字로 뜻은 梁과 같다. 地名으로 쓰여 岩手縣 岩手郡에 筥袋(やなぶくろ)라는 곳이 있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筥 (68-41): 音은 없고 訓은 'ささら'이다. 대나무의 끝을 잘게 쪼개어 만든 道具로 大 筥(笊)을 뜻한다. 「大宇源」에 日字로 '대술조, 대술술조'(蓐也),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대술조'(竹端細割洗器用 又 樂器背面摩擦調節用)라 하였다.

糶 (44-66): 會意字로서 音은 없고 訓은 'もみ'이다. '米'와 '刃'(=刀)과의 合으로, '칼끝(刃先)과 같이 뾰족한 까끄라기가 있는 벼'라는 뜻을 나타낸다. ①もみがら(糶殼)는 穀

物の 外皮인 왕겨를 뜻하며 ②もみごめ(粃米)는 왕겨를 쓰고 있는 쌀 즉 벼를 뜻한다. 「新字典」에 ‘베. 나라. 등겨’라 하였는데 「大宇源」등에도 日字로서 ‘벼 인. 나라 인’(稻也) ②‘등겨 인’(穀皮)이라 하였다.

黍 (23-09): 形聲字로 音은 없고 訓은 ‘くめ’이다. ‘久’(ク)와 ‘米’(メ)의 音을 취해 구메(クメ)라는 音을 나타낸 字이다. 姓名, 地名등의 고유명사에서 ‘구메’(くめ)라는 音을 나타낼때 사용하고 ‘齋의 略字’로도 쓰인다.

「大宇源」에는 日字로서 ‘묵은쌀 구’(陣臭米. 久米의 合字)라 하였는데 黍가 久와 米의 合字인것은 사실이나 뜻을 취한것이 아니고 音만을 취한것이기 때문에 묵은쌀이란 해석은 잘못 된 것이다.

秣 (68-68): 音은 없고 訓은 ‘すくも’이다. 地名에 쓰인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秣 (68-70): 音은 없고 訓은 ‘すくも’이다. ①粃殼(もみがら). 粃糠(もみぬか)등 왕겨의 뜻으로 쓰이고 ②地名으로도 쓰여 ‘秣島(すくもじま)는 山口縣의 德山市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糶 (68-81): 會意字로서 音은 없고 訓은 ‘こうじ’ 또는 ‘かうぢ’라 한다. ‘米에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생기는 누룩곰팡이’라는 뜻을 나타낸 字로 ‘누룩’을 의미한다. 「新字典」에 ‘누룩’이라 하였고 기타 「大宇源」등에도 ‘누룩화’(麴也)라 하였다.

糶 (68-84): 音은 없고 訓은 ‘すくも’이다. 粃殼(もみがら). 粃糠(もみぬか)등 ‘왕겨’의 뜻으로 쓰인다. 地名으로도 쓰여 ‘糶山’(すまもやま)는 岡山縣 久米郡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緇 (69-25): 音은 없고 訓은 ‘かせ. かすり’이다. ①かせ(絛)는 명주실을 감는 工字形의 실패이고 ②かすり(絛)는 붓으로 살짝 스친것 같은 잔무늬 또는 그런 잔무늬가 있는 천을 말한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먹줄 이’(繩墨), ‘점박이이’(絛也)라 하였고, 「漢

韓大字典」은 ‘물레가라 인’(捺也), ‘비백무늬있는 비단인’(絳也)으로 일본어 가스리(カスリ)라 하였다.

絳(69-78): 絳의 俗字.

絳(69-47): 音은 없고 訓은 ‘오도시’이다. 첫째 おどす(をどす)는 갑옷의 甲葉(갑옷미늘)을 실 또는 가죽으로 엮어매는 일을 의미하고, 둘째 おどし(をどし)는 갑옷의 甲葉을 엮어맨 실 또는 가죽을 의미한다. 「大字典」에 日字로써 ‘갑옷미늘다는실 위’(甲鱗縫纒),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써 ‘갑옷비늘달위’以絲綴甲鱗, ‘갑옷비늘다는실 위’(又其絲)라 하였다.

纒(69-66): 訓은 없고 音은 운(ウン)이다. 纒綱(ウンゲン)은 織物名으로 여뀌줄기(蓼筋)에 赤, 藍, 연노랑등의 색을 나란히 섞은 그 사이에 菱形. 花形의 무늬를 짠것을 纒綱錦이라 하고, 이것을 가장자리로 한 다다미를 纒綱緣의 ‘다다미’라 한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채색 운’(采色), 「漢韓大字典」에 ‘빛과빛사이를엮게되어물들일 운 又 줄과줄사이를되어짠직물 운’(纒綱)이라하였다.

縹(69-77): 音은 없고 訓은 ‘카스리’이다. ‘곳곳에 스친 모양을 짜넣거나 또 염색해서 나타낸 織物’을 뜻한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무늬놓은비단 제’(文縹)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비백무늬있는비단 제’(絳也, 有飛白文縹), 日語 ‘가스리’(カスリ)라 하였다.

纒(69-86): 訓은 없고 音은 ‘고우’(コウ.カウ)이다. 絞를 묶다, 매다등으로 訓하는데 ‘纒’가 ‘頁’을 따르기 때문에 絞도 역시 頁을 따른것이다.

‘纒纒’(コウケチ.コウケツ)는 흘치기 염색(しぼりぞめ)의 一種이다. 또한 纒纒(はなぶさこうけつ)는 姓氏이다.

「漢韓大字典」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日字로서 ‘곳곳을엮어매어회계납기어물들인모양 교’(纒纒昔染法之一) 日語 ‘시보리조메’(シボリゾメ)라 하였다.

聾(70-62): 音은 없고 訓은 ‘しかと’이다. 會意字로 ‘耳’와 ‘定’과의 合字로 ‘耳에 확실하게 듣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①확실히, 분명히, 틀림없이 ②단단히 꼭 등의 의미로 쓰인다. 「大字源」 등에 日字로 ‘확실할 정, 튼튼할 정, 분명할 정’(決定之意)등이라 하였다.

腺(33-03): 會意形成字로서 ‘肉과 泉의 合字이다. 生物體內에서 分泌作用을 하는 器官으로 肉中の 水分이 고이는 곳이라는 意味이다.”汗腺 乳腺 淚腺 淋巴腺’등 病名에서 뿐만 아니라 動物體의 器官名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中華大字典」(中華民國 4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腺은 ‘動物體中 皮膜細胞之變性 分泌液汁處 日本生理學家謂之腺’이라 하여 日本字임을 明示하고 있다. 「中文大辭典」과 「辭海」 등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腺’은 본래 日本字이지만 韓國·中國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특이한 글자로 KS에도 수록되어 있다.

現行의 字典중 「漢韓大字典」(民衆書林)은 韓國字로 ‘샘 선’이라 했고, 「大字源」은 그냥 한자로, 「漢韓大字典」은 新字로 명을 선(頸腋核) 살구명선·땀줄기선(肉乳)이라 하였을 뿐 日字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히 일본에서 造字된 字이다.

鱈(71-19): 音은 없고 訓은 ‘たら’이다. ‘たら’는 魚名으로 ‘대구’(鱈)를 뜻한다. 국내 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胾(71-25): 形聲字로서 ‘臟器’를 뜻하는 ‘月(肉)’과 音을 나타내는 ‘萃’(韃)가 合해서 만들어진 造字이다. 消化器官의 하나인 胾臟(韃장)의 의미로 쓰이고 日本音은 ‘스이’(스이)이다.

「中華大字典」(中華民國 4年)에 ‘胾는 臑也 亦謂之胾肉 日本謂之胾’라 하여 ‘腺’과 마찬가지로 日本字임을 明示하였고, 「中文大辭典」과 「辭海」 등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胾’는 분명 日本字이지만 ‘腺’과 함께 韓國·中國等地에서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몇 안되는 특이한 字이다. 「漢和辭典」도 ‘國字였지만 中國에서도 쓰인다.’하였고 「大漢和辭典」에도 ‘臍는 본래 國字’라 하였다. 「大字源」에는 그냥 新字로서 ‘침육경체 지라 喙’(賂肉經)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역시 新字로 ‘체장체·이자 喙’(消化器官之一)라 하였던 바, 이는 腺과 마찬가지로 「新字典」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日字로 해야 옳을 것이다. KS에도 포함되어 있는 字이다.

皚(71-60): 音은 없고 訓은 ‘そり’이다. ‘雪中의 舟’라는 뜻으로 ‘얼음이나 눈위를 미끄러지게 하여 가는 탈것’ 또는 運搬具로 보통 ‘썰매’를 말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蒨(72-45): 音은 없고 訓은 ‘やち’로 ① 濕地를 뜻하며 ② 地名에도 쓰여 芦蒨(あしやち)는 青森縣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蔎(72-72): 音은 없고 訓은 ‘ござ’이다. ‘蘭草(골풀, 등심초)의 줄기를 가늘게 엮어서 만든 자리로 왕골로 테두리를 한 것’을 뜻한다. 자리(座)의 높임말로 ‘莫座’로 쓰기도 한다.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자리 좌’(編蘭莖敷物)라 하였다.

蔞(73-38): 音은 없고 訓은 ‘かつら’이다. ① 蔓草 즉 덩굴풀의 총칭으로 쓰이며 ② 덩굴풀이나 꽃등을 머리장식으로 한것으로 가발(髻)을 뜻하기도 하며 (3) 姓氏로도 쓰인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鮑(73-59): 音은 ‘호우’(ホウ.ハウ)이고 訓은 ‘あわび’(あはび)이다. 鮑와 同字로 ‘전복’을 뜻한다. 「大字源」에 日字로서 ‘전복 보’(全鮑)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전복 포’(全鮑)라 하였다.

蛭(73-66): 音은 없고 訓은 ‘えび’(蝦)이다. 會意字로 ‘虫’과 ‘老’의 合字이다. 老人의 허리와 같이 굽은 ‘새우’라는 뜻을 나타내며 ‘海老’로도 쓴다. 地名으로 쓰여 蛭谷(エビヤ)는 北海道의 渡島國에 있는 地名이며 蛭名(エビナ)라는 姓氏로도 쓰인다. 국내사전

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袷 (74-62): 音은 없고 訓은 ‘ほろ’이다. ‘母衣’로 쓰기도 하며 ① 옛날 갑옷 뒤에 붙은 장식으로 화살을 막던 포대와 같은 천을 뜻하며 ② 비, 햇볕, 먼지등을 막는 덮개를 뜻하기도 한다. 국내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않다.

裱 (74-65): 音은 없고 訓은 ‘かみしも’이다. 會意字로써 ‘衣’와 ‘上.下’를 합하여 만들어진 字로 ‘上.下를 갖춘 衣服’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江戸時代の 武家が 禮服으로 肩衣(かたぎぬ: 室町시대이후의 무사의 예복)와 袴(はかま: 일본 옷의 겉에 입는 주름잡힌 下衣)를 동일한 모양으로 염색한 式服이다. 「漢韓大字典」에 수록되어 있으며 日字로서 ‘예복 상’ (古禮服, 肩衣與袴同色染之)이라 하였다.

衿 (74-66): 音은 없고 訓은 ‘ゆき’이다. 會意字로서 ‘옷(衣)의 화장’(옷의 등술기부터 소매 끝까지의 길이)이란 뜻이다.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옷화장행’(自衣脊縫至袖口之長)이라 하였다.

裱 (74-77): 音은 없고 訓은 ‘つま’이다. 會意字로서 ‘衣’와 ‘妻’의 合字로 옷의 ‘끝부분, 가장자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① 옷자락의 좌우 兩端 부분 ② (옷의)섬의 허리아래 가장 자리를 뜻한다. 「大字典」 등에 日字로서 ‘두렁이 치, 치마치’(圍腰下衣)라 하였다.

襷 (75-07): 音은 없고 訓은 ‘たすき’이다. 會意字로서 ‘衣’와 ‘舉’의 合으로 ‘의복의 소매를 걷어 올리는 끈’이라는 뜻을 나타낸 字로 ‘일할때 옷의 소매자락이나 소매를 걷어 매는 끈’이라는 뜻이다.

「新字典」에 ‘멜빵. 중등 \emptyset ’이라 하였는데, 「大字典」에 日字로서 ‘멜빵 거, 질빵 거’(肩條),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소매걸어 올리는 끈 거’(褸 袖紐) ‘두선이 엮 비슷하게 섞인 형상 거’(二線斜交形)라 하였다.

袷 (75-60): 訓은 없고 音은 ‘조우’(ジョウ, ジャウ)이다. 순수한 日本字는 아니다. 「康

熙字典」은 「五音篇海」를 예로하여 그音が '毗潛切'로 有音無義字라 하였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會意形聲字로서 '言'과 '定'(ジヨウ: 정해졌다는 뜻)과의 合字로 貴人이나 上官의 명령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新字典」에 '命令,分付'라 하였고,「大宇源」은 日字로서 '분부할 정, 명할 정'(命也),「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분부 정'(分付), '명령 정'(命令)이라 하다.

𠄎 (77-31): 音은 없고 訓은 'しつけ'이다. 會意字로서 '身'과 '美'의 合字로 '몸을 아름답게 꾸미는 예의 범절'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しつけ'는 길들이는 것, 단정한 몸가짐, 차림새, 禮容등을 뜻하고 'しつける'는 禮儀作法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大宇源」에는 日字로 '예절가르칠 미'(教禮儀).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예절을 가르칠 미 又 모양별미'라 하였다.

𠄎 (77-32): 𠄎 (77-33)의 俗字이다. 國內사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𠄎 (77-33): 音은 없고 訓은 'やがて'이다. 會意字로서 '身'과 '應'의 合字로 '身體를 곧 그에 적응시킨다'는 뜻인데 轉하여 '이윽고'의 뜻으로 사용한다.

「大宇源」에 日字로 '잠시 응(未久). 「漢韓大字典」에 '문득 응'(未久)라 하였다.

𠄎 (77-58): 音은 없고 訓은 'そり'로 '썰매'라는 뜻이다. 地名으로 사용되어 機織 目 (はなおりそりのめ)는 秋田縣의 能代市에 있는 地名이다.

𠄎 (77-72): 音은 없고 訓은 'すべる'이다. 會意字로서 '길을가다'는 뜻의'辵'과 平탄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一'과의 合字로 거침없이 나가다 즉 '미끄러진다'는 뜻이다. ①거침없이 나가다 ②잘못뒹다, 헛디디다, 실패하다 ③地位를 물려주다 ④물러나다. 退出하다 ⑤실각하다는 뜻등으로 쓰인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①미끄러질 일 (滑也失脚) ②물러갈 일 (退出遜位) ③선위할 일 (禪位).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미끄러질 일(滑

也), 헛다닐 일'(失脚), '선위할 일 又 양위할 일(遜位, 禪位) 물러날 일 (退出), 떨어질 일'(不合格)이라 하였다.

辻 (36-52): 音은 없고 訓은 'つじ'이다. 會意字로써 道路를 나타내는 '辻'과 十字形으로 교차하는 것을 나타내는 '十'과의 합으로 '十字路'라는 뜻을 나타낸다. ①十字路, 交差点 ②길의 주변, 路傍, 街上 ③지나가는 통로 코오스 등의 뜻으로 쓰인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①네거리 십(四街里, 十字路) ②큰길 십(大道路)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 네거리 '십(十字路), 길가 십(路傍)'이 하였다.

込 (25-94): 音은 없고 訓은 'こむ'이다. 會意字로서 '나아간다'는 뜻의 '込'과 들어간다는 뜻의 '入'과의 합으로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나타낸다. 'こむ'는 ①모이다, 집중하다 ②들어가다, 잠입하다 ③복잡하다 등을 뜻하고 'こめる'는 ①넣다, 채우다 ②가두다, 감금하다 ③싸다, 둘러싸다, 포함시키다 ④(정성등을) 들이다, 담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①담을 입 (入滿之意) ②낄 입, 찰 입(入也) ③할 입(爲也) ④모을 입(群集)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혼잡할 입(混雜群集), 담을 입(入也) 할 입(爲也), 일 많을 입(事多) 又 붐빌 입, 절박할 입(切迫)이라 하였다.

込 (77-73): 音은 없고 訓은 'とても'이다. 會意字로서 '込'(道)와 '中'의 합으로 '어느 곳으로라도 정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①도저히, 대단히, 매우 ②~라고 해 ③그렇지만, 그렇긴 하나, 그러나 등의 뜻으로 쓰인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①도저히 중(到底), ②할지라도 중, 좀처럼 중, 암만하여도 중(然而)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도저히 중(到底), 자못 중(頗也) 又 매우 중, 할지라도 중(然而) 又 암만하여도 중 又 좀처럼 중, 비록 중(雖也)이라 하였다.

途 (77-90): 音은 없고 訓은 'さこ. せこ'이다. 'さこ'는 '골짜기'(谷)등을 뜻하며, 'せこ'는 '산등성이(尾根)와 산등성이 사이의 작은 골짜기, 골짜기의 좁아진 곳'을 의미한다. 국내자전은 물론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通(78-08): 音은 없고 訓은 ‘あっぱれ’이다. 會意字로서 ‘宀’과 ‘南’의 合字인데 ‘남쪽(南)으로 가는 하늘이 맑게 개다’는 뜻으로 ‘하늘개임’인 天晴이라는 뜻을 ‘通’으로 표시했다. ‘あっぱれ’는 音便이다. 찬미나 경탄할때 내는 감탄사로 보인다. 「大漢和辭典」에 따르면 「和漢三再圖會. 藝文. 倭字」에 ‘通. 舊事 本紀及古語拾遺等 用天晴二字 多爲讚美詞 近俗以 通 字爲天晴訓 未知其據’ 라하였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가락한 남(贊美歡辭),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찬미경탄하는 경탄사 남 又 가락할 남(歡美詞)이라 하였다.

鈿(41-38): 音은 없고 訓은 ‘びょう’이다. 形聲字로써 ‘金’과 音을 나타내는 ‘兵’(びょう)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머리가 둥글고 큰 못의 일종으로 대갈못, 징(구두의 징), 압정(押釘)을 뜻한다. 「大宇源」에 日字로서 넓은못 병(廣釘), 징병(廣頭釘)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넓은못 병 又 징 병(釘類, 頭廣)이라 하였다.

鈿(79-06): 音은 없고 訓은 ‘にえ’이다. 日本刀의 칼날에 銀모래를 뿌린것 같이 빛나 보이는 잔무늬를 뜻한다. 그러나 「大漢和辭典」에는 日字로 다루지 않고 化學元素의 이름으로 Holmium의 譯語라 하였다. 「新字典」에 ‘칼날의 精彩’라 하였고, 「大宇源」에는 日字로서 ‘칼날번쩍거릴 화’(刀閃),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칼날담그면 나타나는구름모양의무늬 화’(燒刀光雲文)라 하였다.

鈿(79-05): 音은 없고 訓은 ‘かざり’이다. 會意字로서 ‘金’과 ‘芳’의 合字이며 ‘金으로 장식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장식, 꾸밈등의 뜻으로 보이는데 특히 金屬을 사용해서 장식한다는 뜻이다. 「大宇源」에는 日字로서 ‘장식 방’(裝飾金物),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쇠붙이로 장식할 방’(用金屬而飾)이라 하였다.

鈿(70-07): 訓은 없고 音은 ‘ブ’로 鈿力(ブ力キ)는 얇은 鐵板에 주석(錫)을 도금한 것으로 네델란드어 Blik의 音譯이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銚(79-17): 音은 없고 訓은 ‘かすがい’이다. 會意字로서 ‘金’과 연결의 뜻을 나타내는 ‘送’과의 合字로 물건을 묶어두는 金具라는 뜻을 나타낸다 ①맞댄 부분을 묶어두는 ‘コ’字形의 못, ②둘 사이를 묶어두는것으로 碇(자식은 夫婦의 碇)를 뜻한다. 「大字典源」에는 日字로 ‘碇쇠 송’(接釘),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碇쇠 송 又 거덜못 송’이라 하였다.

鋏(44-90): 音은 없고 訓은 ‘やり’로 ‘鋏’의 俗字이다. 刀物의 뜻을 나타내는 ‘金’과 상대에게 보낸다는 뜻의 ‘遣’과의 合字로 ‘창’이라는 뜻을 나타낸 字이다. 「大字典源」 등에 日字로 ‘창 견(槍也)’이라 하였다.

闕(79-59): 音은 없고 訓은 ‘つかえる’이다. 會意字로 「大漢和辭典」에 의하면 「和漢三再圖會. 藝才. 倭字」에 ‘闕. 事物否塞之義 如門前有山也 與否同義與可否之否 混雜故乎’라 하였다. ①지장(장애)이 있다. 사정이 나쁘다. ②막혀서 통하지 않다, 장애물에 걸리다, 막히다 ③가슴이 막혀 답답하다, 먹은 것이 잘사지 않고 위에 남다, 트릿하다 ④울화등으로 가슴이 막히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大字典源」 등에 日字로 ‘비색할 산, 운나뿔 산(否塞), 걸릴 산(障也)’이라 하였다.

閘(79-61): 音은 없고 訓은 ‘ゆり’이다. 물을 막아서 逆流를 막는 ‘水門’을 뜻한다. 地名에도 사용되어 閘上(ゆりあげ)는 宮城縣에 있는 地名이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掣(28-22): 音은 없고 訓은 ‘しづく’이다. 순순한 日本字는 아니다. 「康熙字典」은 「龍龕水鑑을 예로하여 ‘掣’는 그 音이 ‘奴寡切’로 有音無義字라 하였다.

그러나 日本에서는 會意字로써 ‘雨’와 ‘下’(떨어진다는 뜻)의 合字로 ‘방울져 떨어지는 빗물’이라는 뜻으로 ‘물방울’의 뜻으로 사용된다. 「大漢和辭典」에 의하면 「和漢三材圖會. 藝才. 倭字」에 ‘掣, 出續字彙補而義闕 倭爲涓滴字’라 하였다. 地名으로도 사용되어 ‘掣石(しづくいし)는 陸中國의 地名이다.

「漢韓大字典」에 音은 ‘와’이며 本義未詳이라하고 日字로는 ‘물방울 하’(涓滴)라하였

다

鞆(80-61): 音은 없고 訓은 ‘とも’이다. 會意字로서 ‘革’과 팔찌(とも)의 형태를 닮은 ‘丙’과의 合字로 ‘팔찌’라는 뜻을 나타낸다. 활을 쏠때 왼팔에 대는 등 그런 가죽으로 된 물건이다. 활시위로 손목을 치는 것을 예방하며 높은 소리를 낸다. 「新字典」에 ‘팔’라 하였고 「漢韓大字典」등에 日字로서 ‘활팔찌 병’(昔射弓時, 附左臂之革製武具, 畫巴形字)이라 하였다.

鞆(80-64): 音은 없고 訓은 ‘こはぜ’이다. 會意字로 ‘가죽에 걸쳐서 물건의 상하를 고정시키는 것’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書帙, 다비(足袋: 日本式 버전), 脚絆등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메뚜기’를 뜻한다. 「新字典」에 ‘딱지’라 하였는데 「大字典」에는 日字로 ‘딱지하’(革帙具),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 ‘아래위를 어긋는것 하 又 딱지 하’(革帙具)라 하였다.

颯(81-04): 音은 없고 訓은 ‘おろし’이다. ‘風’과 ‘下’(おろす; 아래쪽으로 옮기다)의 合字로, ‘산위로부터 불어내려오는 바람’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新字典」에 ‘나려지르는 산바람, 재넘이’라 하였고, 「大字典」에 日字로 ‘내려지르는 바람 풍(壓風), 「漢韓大字典」에 日字로 ‘내려부는바람 풍’(從上吹下風)이라 하였다.

饅(81-27): 訓은 없고 音은 ‘운’(ウン)이다. 形聲字로 ‘食’과 音을 나타내는 ‘畺’(オン.ウン: 따뜻하다는 뜻->溫)으로 이루어진 자이다. ‘饅飩’(ウンドン.ウドン)은 小麥粉을 반죽하여 가늘게 자른 면류(麵類)의 一種이다.

「大字典」에 日字로 音은 ‘운’이나 뜻은 ‘未詳’이라 하였으나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 ‘밀국수 운 又 우동 운’(饅飩)이라 하였다.

鮒(82-27): 音은 없고 訓은 ‘かじか’이다. 清流에 사는 문질망둑(鮒)를 닮은 淡水魚로 ‘독중개’를 뜻한다. 地名으로도 쓰여 鮒谷(かじかだに)는 越後國의 地名이다. 국내자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鱒(82-28): 音은 없고 訓은 ‘このしろ’이다. 會意字로 ‘겨울에 잡히는 고기’라는 뜻을 나타낸다. 暖海의 内灣에 사는 전어과의 海魚로 ‘전어’를 뜻한다.

「新字典」에 ‘鱒魚’라 하였는데, 「大字典」에는 日字로 ‘전어동’(魚名) 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 ‘전어동’(鱒也), 日名 고노시로(コノシロ)라 하였다.

鱒(82-32): 音은 없고 訓은 ‘ごり. めばる’이다. ‘ごり’는 淡水魚의 이름으로 ‘독중개’를 뜻하며, ‘めばる’는 수염어과의 近海魚로 ‘볼락:천정어’를 뜻한다. 국내사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鱒(82-37): 音은 없고 訓은 ‘あさり. うぐい’이다. ‘あさり’(淺蜆)는 淺海의 泥砂에 사는 二枚貝로 모시조개를 의미하며 ‘うぐい’(鰻:石斑魚)는 맑은 急流에 사는 잉어과의 淡水魚로 ‘황어’(鰻)를 뜻한다. 또한 地名으로 쓰여 鰻浦(ウグイウラ)는 尾張國의 地名이다. 「新字典」에 ‘모시조개, 제비조개’라 하였고, 「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모시조개 리(蚌屬),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 ‘마지락조개 리(鱒鰻類 二枚貝, 居淺海泥中, 肉美味, 通用蚌)라 하였다.

鱒(82-38): 音은 없고 訓은 ‘かずのご’이다. 말리거나 소금에 절인 청어알을 뜻한다. 「新字典」에 ‘말린청어알’이라 하였고 「大字典」에는 日字로 ‘청어알 회(靑魚卵),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 ‘말린청어알 회(乾靑魚卵)라 하였다.

鱒(82-39): 音은 없고 訓은 ‘こち’이다. 淺海의 砂泥地에 사는 양태과의 海魚로 ‘양태’를 뜻한다. 「新字典」에 ‘牛尾魚, 鱒魚’라 하였는데 「大字典」에는 ‘바다메기 통’(海鮎), 「漢韓大字典」에는 ‘양태 용’(棘鱗 目硬骨魚, 形似鱒 近海泥沙中潛伏) 이라 하였다.

鱒(82-48): 音은 ‘넌’(ネン)이고 訓은 ‘なます’이다. 形聲字로 ‘魚’와 音을 나타내는 ‘念’(ネン.デン: 메기라는 뜻-> 鮎 ネン.デン)으로 이루어진 字로 ‘메기’를 뜻한다. 日本에서는 ‘鮎’(메기)이 ‘은어’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鮎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字이다. 日本字이지만 中國에서도 사용된다.

「新字典」에 ‘鮎同’이라 하였고 「大字典」에 日字로 ‘메기 염’(鮎魚), 「漢韓大字典」에 ‘메기 염’(鮎也) ‘털부 염’(蓄鬚人)이라 하였다.

鮎(82-47): 音은 없고 訓은 ‘しゃち’이다. 會意字로 ‘魚’와 ‘虎’의 合字로 ‘호랑이와 같은 고기’라는 뜻이다. ‘しゃち’는 ①돌고래 科에서 가장 큰 海獸로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 고래등을 공격한다고 하는 ‘범고래’를 뜻하며 ②想像上の 海獸라고도 한다. ‘しゃちほこ’는 城의 지붕등의 용마루 兩端에 붙이는 ‘범고래 형의 장식기와’를 뜻한다. 「新字典」에 ‘虎頭魚’(在伊勢海云)라 하였는데, 「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물호랑이호’(海獸一種),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범고래 호’라 하였다.

鮎(82-46): 音은 없고 訓은 ‘どじょう’이다. 會意字로 ‘魚’와 ‘진흙’이라는 뜻의 ‘汚’의 省略形인 ‘於’와의 合字로 ‘川底의 진흙속에 사는 고기’라는 뜻을 나타낸다. 즉 ‘미꾸라지’를 뜻한다. 「新字典」에 ‘밧구리’라 하였고, 기타 「大字典」등에도 日字로서 ‘미꾸라지어’(鮎也, 鰍也)라 하였다.

鮎(16-83); 音은 없고 訓은 ‘いわし’이다. 會意字로서 ‘魚’와 ‘弱’의 合字로 ‘약한 고기’라는 뜻이다. 첫째는 정어리과의 小形海魚로 일반적으로 ‘まいわし’(眞鮎)라 하며 ‘정어리’를 뜻한다. 둘째는 녹이슬어 무딘칼을 비유하여 赤鮎(あかいわし)라 한다. 「新字典」에 ‘메르치’라 하였는데, 「大字典」에 日字로서 ‘멸치 약’(鮎魚), 「漢韓大字典」에도 ‘멸치 약’(鮎也, 海産硬骨魚)으로 日名 ‘イワシ’라 하였다. 그러나 日語 이하는 멸치가 아니라 ‘정어리’를 뜻한다.

鮎(82-64): 音은 없고 訓은 ‘はたはた’이다. 會意字로 ‘魚’와 ‘神’(雷神이라는 뜻)의 合字로써 ‘천둥 잘 치는 계절에 몰려드는 고기’라는 뜻을 나타낸다. 바닷물고기로 ‘도로묵, 은어’ 등을 뜻한다. 雷鳴이 많은 12월쯤 秋田縣 沿岸 등에 産卵을 위해 모인다. 「新字典」에 ‘雷魚’라 하였는데, 「大字典」에는 ‘은어 신(雷魚, 銀魚), 「漢韓大字典」에는 ‘도로묵 신’ 日名 ‘ハタハタ’라 하였다.

鰻 (82-65): KS에도 실려있는 字이다. 形成字로써 뜻을 나타내는 '魚'와 音を 나타내는 '康'의 合字로서 日音 'カウ'(또는コウ)로 海魚의 一種인 '아귀'를 나타낸다. 「大漢和辭典」(諸橋轍次)에 「鰻」은 國字로서 '鮫鰻은 海魚의 하나'라 하였고 「漢和辭典」역시 「鰻」은 '國字로서 魚와 音を 나타내는 康으로부터 이루어진 形成字로, 「鮫鰻」은 琵琶를 닮은 體形으로 둥글고 납적한 머리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頭上의 긴 突起를 움직여서 小魚를 찌어 捕食한다. 특히 겨울에 맛이 좋으며 琵琶魚, 華臍魚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新字典」에 日字로서 '鰻 (アンカウ) 鯷정어 華臍魚'라 하였고, 「大宇源」은 日字로서 '천징어 강'(鮫鰻)이라 하였다. 그리고 「漢韓大字典」(民衆書林)¹⁶⁾은 漢字로서 '아귀 강'(鮫鰻)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日字로서 '아귀 강으로 鮫鰻은 海魚의 一種으로 日名 アンカウ'라 하였다. 이로 볼때 「鰻」은 日字로서 '鮫鰻'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새우리말 큰사전」¹⁷⁾등에 鮫鰻은 '아귀'를 말하며 鮫鰻網. 鮫鰻科. 鮫鰻魚. 鮫鰻魚目 등이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鰻」은 日字이지만 韓國에서도 흔히 쓰이고 있는 字인 듯 하다. 그리고 鮫鰻은 「新字典」은 '鯷정어'라 했고 「大宇源」은 '천징어'라 하였으나, '鯷정어'는 '독중 개과에 딸린 민물고기'로 아귀와는 다른 종류이며 천징어는 역시 '불락'을 가리키는 것으로 海魚인 것은 사실이나 아귀와는 다른 종류이다.

鱈 (35-13): 音은 세쓰(セツ) 訓은 'たら'이다. 會意字로써 '魚'와 '雪'의 合字로 '눈(雪)이 내리는 계절에 잡히는 고기'라는 뜻이다. 日本字이지만 中國에서도 쓰인다고 한다. 北洋의 深海에 사는 고기로 '대구'를 뜻한다. 「新字典」에 '대구'라 하였고 「大宇源」등에도 '대구 실'(大口魚)이라 하였다.

鱈 (82-69): 音은 없고 訓은 '키스'이다. 形聲字로 '魚'와 키스 의 '키'음을 나타내는 喜(キ)로 이루어진 자로 '보리 멸'을 뜻한다. 暖地의 沿岸에 살고 '꼬치고기'(かます)를

16) 民衆書林編輯局. 漢韓大字典. 李相殷 監修. 서울 : 民衆書林, 1966.

17) 申琦澈. 申璐澈 編著. 새우리말큰사전. 增補版. 서울 : 三省出版社, 1980.

鶯(82-76): 音은 없고 訓은 ‘にお’이다. 會意字로써 ‘鳥’와 ‘入’의 合字로 ‘물로 숨어 드는 새’라는 뜻이며 오리를 닮은 작은 水鳥로 ‘되강오리, 농병아리’를 말한다. 鶯海(におのうみ)는 琵琶湖의 異稱이며 姓氏로도 쓰인다. 「新字典」에 ‘쥐오리’라 하였는데, 「大字典」에 日字로 ‘쥐오리 입’(似鴨水鳥名),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 ‘되강오리 입’ 日名 ‘ニホ, カイツブリ’라 하였다.

鴨(28-18): 音은 없고 訓은 ‘しぎ’이다. 會意字로 ‘鳥’과 ‘田’의 合字로써, ‘밭(田)이나 못(澤)에 사는 새’라는 뜻이다. 물가에 살며 흰눈썹 뜸부기를 닮은 철새로 ‘도요새’를 뜻한다. 「大字典」에 ‘도요새 전’(鶻也)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도요 전’(鶻也)이라 하였다.

衡(82-93): 音은 없고 訓은 ‘ちどり’이다. 會意字로서 ‘行’(步行한다는 뜻)과 ‘鳥’의 合字로 ‘岸邊등을 步行하는 새’라는 뜻을 나타낸다. 물가에 무리를 지어 사는 작은새로 ‘鶻’로 쓰기도 하며 ‘물떼새’(千鳥)를 말한다. 「大字典」에 日字로 ‘새떼 행, 많은새 행’(群鳥), 「漢韓大字典」에는 ‘떼새 행’이라 하였다.

鶻(83-03): 音은 없고 訓은 ‘いかる.いかるが(斑鳥)이다. 주둥이가 黄色으로 두툽고 全身이 黑灰色의 ‘되 새’(鶻鶻.花鶻)科의 새로 ‘밀화부리, 고지새’를 뜻한다. 播磨國의 地名으로도 쓰였고 姓氏로도 쓰인다. 「大字典」에 日字로 ‘산비둘기각’(斑鳥)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에는 日字로서 ‘제주고지새 각’이라 하였다.

鶻(83-10): 音은 없고 訓은 ‘つぐみ’이다. 漢字의 ‘鶻’(トウ: つぐみ)을 본떠서 만들어 동일하게 ‘つぐみ’를 의미한다. 때까치를 닮은 작은새로 가을에 북방 으로부터 큰 무리를 이루어 오는 철새인 ‘개똥지바퀴’(티티새 또는 백설조라고도 하는 철새)를 뜻한다. 「大字典」에 日字로서 ‘공새 간’(鳥名)이라 하였고, 「漢韓大字典」은 ‘티티새 간’(鶻也)이라 하였다.

鯛는 海魚로 고기는 淡白하고 맛이 좋으며 白보리멸과 靑보리멸 두종류가 있다. 中國名은 鼠頭魚이다. 「新字典」에 '鼠頭魚'라 하였고, 「大字典」등에도 日字로 '서두어회'라 하였다.

麿 (43-91): 音은 없고 訓은 '마ろ' 이다. '麻'(ま) 와 '呂'(ろ)로 이루어져 日本語 '마ろ'의 音에 맞춘 字이다. 첫째는 平安時代에 주로 쓰던 自稱代名詞로 '나'란 뜻이며 둘째는 주로 人名 아래에 덧붙이는 접미어로 童子에게 사용한다. 「新字典」에 '나, 그대, 자네, 丈夫美稱'이라 하였는데, 「大字典」에 日字로서 '그대 마, 자네 마'(丈夫美稱, 君貴公), 「漢韓大字典」에 日字로서 '그대 마 又자네 마, 사람이름 마'라 하였다.

4. 結 言

이상으로 JIS X 0208-1990에 수록된 153字의 日本字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들을 종합해 보면 순수한 日本字는 147字이며 본래는 漢字였으나 지금은 日本字로 만 주로 쓰이는 字가 5字(呷, 噸, 噸, 噸, 噸)였다. 이들중 收錄字수가 세계 제일이라는 「大漢和辭典」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자가 39字이며 국내자전류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字는 47字였다. 국내자전류로는 「新字典」과 「大字典」, 「漢韓大字典」을 주로 참고하였으나 「新字典」에는 日訓과 뜻만을 수록하였고 「大字典」과 「漢韓大字典」에는 訓과 아울러 音도 수록하였으나 이는 日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類推에 의한 推定音일 뿐이다. 따라서 양자의 音이 간혹 다른것이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漢和辭典」에는 日字로 되어있으나 「大漢和辭典」에는 漢字로 취급된 것들이 14字있다. 이들은 모두가 度量衡의 單位를 나타낸 것들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呷 (50-72);feet.	噸 (38-53); ton.	噸 (65-06); ton
𪛗 (67-71); decalitre	𪛗 (67-72);kilolitre	𪛗 (67-73);decilitre
𪛗 (67-74);millilitre	𪛗 (67-78);hetolitre	𪛗 (67-82);centilitre

料(68-66);decametre 料(22-46);kilometre 耗(44-16);millimetre
 耗(68-74);hectometre 糶(33-24);centimetre

「新字典」은 말미에 따로 ‘新字新義部’를 두어 59字的 新字 및 新義字를 수록하였는데 상기한 것들은 대부분 이 新字新義部에 속해있다.

그리고 「大字典」 및 「漢韓大字典」도 「新字典」의 영향으로 日字와 구별하여 이들을 ‘新字’라 하였다. 그러나 新字新義部에는 분명한 日字인 腺, 隣등도 수록되어있고 이들과 同類의 甦, 甦, 甦, 甦, 甦, 甦 등이 모두 日本字인 것으로 보아 上記한 것들도 日本에서 造字된 字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타 ‘櫻’(본래는 앵두나무를 뜻하나 日本에서는 주로 벚나무.벚꽃을 뜻함), ‘(笑의 古字이나 日本에서는 주로 (꽃등이) ‘피다’는 뜻으로 사용)등 日本에서만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字들이 적지 않으나 그 양의 방대함으로 本稿에서는 제외하였다.

參 考 文 獻

< 辭 典 類 >

- 廣辭林. 三省堂編輯局編. 第5版. 東京：三省堂, 1980.
- 國字の字典. 菅原義三 編. 東京：東京堂, 平成 2年(1990).
- 大字源. 張三植 著. 서울：三省出版社, 1990.
- 大漢和辭典. 諸橋徹次 著. 修訂版. 東京：大修館書店, 昭和59年(1984).
- 세우리말큰사전. 申琦澈, 申瑢澈 編著. 增補版. 서울：三省出版社, 1980.
- 新修康熙字典. 張玉書等 總閱；凌紹雯等 纂修；高樹藩 重修. 台北：啓業書局, 中華民國 75年.
- 엠텐스日韓辭典. 安田 吉實, 孫洛範 共編. 서울：民衆書林, 1987.
- 日韓大辭典. 柳呈 監修. 서울：韓英出版社, 1978.
- 字典釋要. 池錫永. [漢陽]：匯東書館, 1909. 1976年 亞細亞文化社 影印.
- 漢韓大字典. 金赫濟, 金星元 編著；車柱環, 張基權, 金學柱 監修. 서울：明文堂, 1984.
- 漢韓大字典. 民衆書館 編輯局；李相殷 監修. 서울：民衆書林, 1966.
- 漢和辭典. 赤塚 忠, 阿部吉雄 編. 改訂新版. 東京：旺文社, 1989.

< 單 行 本 >

- 內務部. 地方行政區域要覽：1987. 內務部 地方企劃課, 1987.
- _____. 地方行政區域要覽：1990. 內務部 地方企劃課, 1990.
- _____. 地方行政地名史. 內務部 地方企劃課, 1982.
- 日本規格協會. 情報交換用漢字符號系(JIS C 6226-1978). 東京：日本規格協會, 昭和 53年(1978).
- _____. 情報交換用漢字符號系(JIS X 0208-1990). 東京：日本規格協會, 平成 2年(1990).

< 論 文 >

- 李春澤. Computer코드화를 위한 韓國工業規格과 日本工業規格의 基本漢字에 대한 比較分析, 清浪鄭駉模博士華甲紀念論文集. 서울 : 同論文集編纂委員會, 1990.
- 李春澤. 韓.日國家規格 漢字코드의 統合研究.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1991

A Study on the Chinese Characters
Originated in Japan
in Japanes Industrial Standard

Abstract

Choon-Tack Lee*

Among the Chinese Characters originated in Japan, some of them are very ancient in their origin and others come to exist as different forms by being used widely in forged books in Chinese. These Characters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First, the Chinese Characters whose forms are different. Most of these are "hoiui" (會意) character, being made by imitating the forms of the original Chinese Letters. These characters do have meaning but not pronunciation. This is one distinct feature of Chinese Characters originated in Japan.

Second, the Chinese Characters whose meaning has been assigned by the Japanese people. These letters can be grouped into two. One is the letters whose meanings are entirely different from original Chinese Characters, and the other is the letters whose meanings are not known although their pronunciations are known.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letters with different forms are made because of the ignorance of letter's existence. 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e letters were made on purpose in order to be used in different meanings.

Third, the Characters with a partial modification of original Chinese Characters.

Among the Characters in three groups above, pure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are those in group one and three since those in group two are Chinese Letters whose meanings(or pronunciation)only are Japanese.

As a results of detailed investigation of pure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 in JIS X 0208-1990, the followings are discovered :

1. Pure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are 147 in numbers.
2. The Characters which were originally Chinese but now considered to be Japanese-made are 5 in numbers. Among these letters, 39 Characters are not listed in TaeHanHwaSaJon(Whose fame is well known as the authoritativ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47 Characters are not found in the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compiled in Korea.
3. 14 Characters seem to be Japanese-made Chinese Characters although it cannot be said so with accuracy because of various meanings found in several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